

치 사

제13회 불교출판문화상을 맞이하여, ‘올해의 불서’와 같이 소중한 성취들을 나누어 오셨던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교문화 선양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출판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판은 정보와 지식을 담는 가장 오래된 그릇으로써, 선대가 이룩한 수승한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중심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불교출판 역시 전통문화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유·무형의 사찰문화와 불교교리, 그리고 수행법 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쉽 없는 정진의 삶을 살아온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알리고 후대에 보전하는 소중한 공덕이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출간하는 일은 개인의 작은 결심만으로는 성취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길을 걸으며 부처님 법을 더욱 널리 알리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노력하시는 불교출판관계자 여러분이야말로 불교사상과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포교사이자 공로자라 할 것입니다.

불교계 출판인들과 그 출판물들이 사회적인 흐름을 담아내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와 시사에 접근하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엮어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래와 희망을 위하여 불교의 지혜를 전달하고 전파하는 출판인들의 사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인내, 그리고 정진의 마음으로 쌓아온 하루하루는 현시대에 지혜로운 광명으로

다가올 것이며, 행복이 넘치는 일상의 삶에 밝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불교와 전통문화 보급의 큰 획을 긋는 불교출판문화상이 성성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불교출판문화협회장 지홍스님을 비롯한 불교출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60년 11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